

아파트 8m 옆 새 아파트 신축공사 '불안'

함평 해보면 용산리...정화조 내려앉고 주차장 균열
출입로 이전도 요구...“큰 사고 나기전에 공사 멈춰야”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 A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축 공사현장이 인근 아파트와 바짝 붙어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시공사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자신들의 아파트 정화시설이 내려앉고 주차장 등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 용산리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공동주택 공사로 정화조 시설이 내려앉고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동주택은 40세대가 살고 있는 A아파트에서 8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다. 대지면적 1530㎡, 건축면적 462㎡, 연면적 2064㎡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19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 4월 23일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바다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공사현장 옆 A아파트 주민들은

“신축하는 시공업체가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인근의 지반이 약한 구간에서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화조에서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이 아파트의 주 출입로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주 출입로를 함평군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면서 말뚝을 빙고 있다.

이 공동주택이 계획한 주 출입로(용산리 936-13번지) 부지는 도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 도로로 예정되었으나 지목은 전(田)으로 돼 있다. 이 부지는 그동안 주민들이 주차장 등 생활 공간으로 사용해 왔고, 노인들의 통행도 잦아 새 아파트의 출입로까지 생기면 오가는 차량이 늘어 사고의 위험도 높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동주택 시행사에 출입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함평군도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을 답사한 후 지난날 시행사에 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아파트 주민 B씨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공사가 시작된 후 아파트 정화조 오수관이 파손되고 지반침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LPG저장 시설의 안전도 걱정된다”며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주민자치회, 시공사, 군정관계자 등 3자가 논의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정화조 파손 등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 출입로 이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호국보훈의 달...함평 임시정부 청사 복적

함평지역 어린이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위치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전시물에 관람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09년 6월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1886~1934) 선생의 생가 옆에 중국 상하이에 있던 붉은 벽돌집 형태의 원래 모습대로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했다. 오른쪽은 복원한 임시정부 청사.



<함평군 제공>

탄도·함해만 등 3개 해역에 무안군 치어 33만마리 방류

무안군이 인공 어초 투하와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연안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계면 구로리 해역과 탄도만, 함해만 등 3개 해역에 점층어 5만6000마리, 넙치 13만 마리, 돌돔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수산종묘를 방류한 청계만, 탄도만, 함해만 해역은 어류의 주산란지와 서식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무안군은 이곳 해역에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해 수산자원 증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2000년부터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우량 수산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와 다양한 인공어초를 지속적으로 시설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남도 6월 대표 남도 전통술

영광 대마주조장 '보리향 탁주' 선정

전남도는 6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영광 대마주조장(대표 정덕진)의 '보리향 탁주'를 선정했다.

보리향 탁주는 보리 특구인 영광산 찰보리 쌀을 사용해 진한 보리향과 걸쭉한 맛이 일품이다.

정 대표의 어머니 이숙여(89) 여사가 영광 대마면의 나주 정씨 집안으로 시집와 18살부터 술을 빚었다. 당시에는 쌀이 부족해 보리로 막걸리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보리향 탁주로 이어지고 있다. 영광지역에서는 '할머니 막걸리'로 더 유명하다.

보리 원료를 3번의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 보리 막걸리만의 독특한 맛과 알싸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담고 있다.

한때 보리 가공식품은 정부의 보리 수매제 폐지와 보리 수요 감소로 쇠락의 위기를 맞았으나 쌀보다 많은 식이섬유 등 함량이 식품업 점을 공략, 탁주 차별



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리향 탁주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ml 1병 기준 1000원. (061-351-9988).

한편 보리는 비타민 B₁·B₂가 풍부해 변비와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건강참살이 식품이다. 칼슘과 섬유질, 티아민 B가 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도 좋다. 칼륨이 다량 함유돼 있고 식이섬유는 쌀보다 10배나 많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신안군 올 어선 10척 감척 16~30일 접수

신안군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4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어선 1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은 전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과 연안개량 안강망, 새우조망 어선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대상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

는 어민이다.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을 비롯해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다.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한편 신안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46척과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문의(061-240-8406) /신안=이상성기자 sslee@

영광 보리사료 먹인 돼지고기 판매점 개장

보리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 판매점이 영광에 문을 열었다.

영광군은 지난 30일 영광 매일시장 주변 향토 먹거리촌에 60석 규모의 '보리 올 포크' 전문 판매장을 개장했다.

'보리 올 포크'는 보리산업 특구인 영광군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를 사료화시켜 먹인 돼지고기이다.

영광군은 (사)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와 5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황금돼지 종돈(YBD)을 개발해 '보리 올 포크' 브랜드를 출시했다. '보리 올 포크'는 농가 적응시험 및 시식회를 통해

냄새가 적고 마블링이 좋으며, 육질이 부드러워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리 올 포크'는 현재 영광축협 하나로 마트와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 (파람스)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10여 개의 판매망을 여는 등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리 올 포크' 전문판매장에서 고기를 시식한 주민 이정순 씨는 "일반돼지보다 냄새가 적고 담백하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진여시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펜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상,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생계사, 화약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주인 직접상담 : 010-2928-0202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선정!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광주빛고을 스포츠클럽은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주민편의 스포츠클럽입니다.

모집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연령별 맞춤형 종합 스포츠 클럽 운영
회원 선착순 모집

종목	요일	시간	장소	종목	요일	시간	장소				
탁구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요가	월, 수, 금	오후 4시-5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오후 9시 30분-12시 30분	호반베르디움휘트니스				
		아간 6시-10시				아간 8시-10시	고실대권도장				
	화, 목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건강댄스	월, 수, 금	오후 3시-4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농구(유소년)	화, 목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오전 10시-12시							배드민턴	월, 수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6시	금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오전 10시-12시		토, 일	오후 3시-5시	북구종합체육관							
오후 2시-6시			야구(유소년)	토, 일		오후 3시-6시	북구종합야구장				
아간 7시-9시	신항중학교 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00번지(구 동림동 10-1번지) 다목적체육관
TEL. (062)714-2002